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85-01



인권정보 활용교육

유엔의 지식정보체계 이해 및 진출방법 : 인권분야를 중심으로

- ▶ 일시 _ 2010년 12월 22일(수) 13:30-16:00
- ▶ 장소 _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 ▶ 주최 _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보 활용교육

유엔의 지식정보체계 이해 및 진출방법 : 인권분야를 중심으로

김정태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팀장

www.theUNtoday.com

danhovision@hanmail.net

목 차

1. 국제기구의 의미	5
2. 국제기구의 탄생	6
3. 유엔조직의 이해	8
4. 유엔의 지식정보 시스템	10
1) 유엔문서포털(UN Official Document System)	11
2) UN-I-QUE(UN Info Quest)	12
3) 유엔보도자료	12
4) 유엔조약 검색사이트	13
5) 유엔통계	13
6) 유엔연감	14
7) 유엔크로니클	14
8) 유엔사진	15
9) 유엔멀티미디어	15
10) 유엔인터넷방송국	15
11) 유엔도서관	16
12) 유엔뉴스	16

5. 유엔과 인권	17
1) 유엔에서 인권의 위치	17
2) 인권관련 지식정보체계	18
3) 인권관련 진출전략	18
4)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하라	23
6. 유엔인턴십 소개	24
1) 유엔 인턴십은 리트머스다	24
2) 유엔인턴십은 발돋움(Stepping stone)이다	24
3) 유엔이 규정한 인턴십의 목적	25
4) 유엔인턴십 관련 통계	25
5) 인턴십 선발과 지원자격	27
6) 인턴십은 DIY!	29
7) 참고자료	30

유엔이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때론 웬지 모르는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유엔에서 출판된 <United Nations in Your Daily Life>란 책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영위하는 삶 자체가 유엔 산하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을 쓰고, 커피를 마시고, 특허권이 걸려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슬로시티’에 관광을 가고, 신종플루에 관한 예방수칙을 알아보는 등 유엔은 현대인의 삶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유엔의 홈페이지(rwww.un.org)에 가보면, 처음으로 당신을 맞이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6개 유엔공식어로 쓰인 ‘United Nations-It's Your World!’(유엔, 당신의 세계)이란 문구이다.

멀리만 느껴졌던 유엔에 대해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소개와 더불어 진출에 관련된 정보와 도움말들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인권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국제기구의 의미

먼저 유엔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국제기구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법인단체’를 뜻한다. 여기서 국제문제(國際問題, international)란 ‘국제’(國際, international)란 말에서 의미하듯이 ‘국가 간의 문제’ 혹은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의미한다. 국가를 원형 공으로 생각해자. 192개 유엔 회원국 ‘공’이 길쭉한 실린더 통에 담겨져 있다. 실린더 통의 내부 공간이 가득 찰까? 그렇지 않다. 공과 공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바로 ‘국제문제’를 뜻한다.

국제기구는 크게 2가지 범위로 나뉘는데, 바로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유엔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제8장 52조는 “지역적인

조약 또는 기관의 존재”(the existence of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를 인정하고 있고, 제10장 71조는 유엔이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와 협의”(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정부간기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즉, 설립 목표에 동의하는 개별정부들의 협의로 설립되었다는 뜻이다. 한국에 있는 정부간기구 본부로는 국제백신연구소(www.ivi.or.kr)가 있고, 2010년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www.gggi.org)가 새롭게 설립된 바 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제적십자사, 국제투명성기구 등은 비정부기구 유형의 국제기구이다. 사실 ‘비정부기구’라는 말의 의미도 유엔헌장의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유래되었다.

현존하는 국제기구는 대략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각각의 국제기구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식정보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도 존재한다.

2. 국제기구의 탄생

간략하게 국제기구의 탄생 역사를 알아보자.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면, 국제기구의 기능과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세시대가 몰락하는 기점은 1618년에 시작되어 1648년에 끝난 독일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이었다. ‘정치와 신앙의 분리, 그리고 영토적 주권국가의 등장’이란 새로운 시대정신은 프랑스, 독일, 영국, 에스파냐 등 강력한 근대국가를 형성했다. 그리고 강력해진 유럽의 주권국가는 1797년~1815년 나폴레옹전쟁을 통해 충돌했는데, 그 후 서로를 견제하는 ‘힘의 균형’(Concert of Europe)이 성립되었다. 이후 인류는 소위 ‘합리적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인간이성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인간사회의 진보에 대한 이상’으로 특징된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만국

평화화의 1차와 2차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에 대한 확신’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무산되게 된다. 결국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균형만으로는 참혹한 전쟁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1920년 국제연맹(League of the Nations)을 창설하게 된다. 이때가 ‘국제기구 1.0’ 시대의 시작이다. 물론, 최초의 국제기구는 1865년에 설립된 국제전신연합(ITU)이라 할 수 있지만, 특정분야를 넘나들어 정치경제사회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는 1920년의 국제연맹이 시초이다.¹⁾

국제연맹은 여전히 ‘인간이성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만들어져, 상임이사국(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만장일치제도 채택, 그리고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능으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탈리아와 일본의 상임이사국 탈퇴와 함께 패전 독일제국과 ‘추축국’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1939년)이 발발하게 된다. 뼈아픈 교훈을 얻은 국제사회는 1945년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새롭게 창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기구 2.0’의 시작이며, 오늘까지 지속되는 국제기구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국제기구 3.0’이란 존재할까?

참고로 국제기구는 ‘거버넌스’ 원리를 통해 운영된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가버먼트(government)와 비교할 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국제사회, 학계 등의 관련된 주체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국제기구는 이러한 거버넌스 원리를 통해 국제문제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을 증진해가고 있다.

1) 국제협력, 국제기구의 초기 역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유엔사무총장>(김정태, 2007) 참조

2) 유엔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또는 “the process by which power is implemented”라고 표현한다.

1) 유엔문서포털(UN Official Document System) <http://ods.un.org>

동 포털은 유엔결의문(resolution), 유엔문서(UN Documents) 등을 검색하는 데 이용되는 시스템이다. 1992년 이후 약 100만건 이상의 유엔문서 전문 검색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유엔저널, 보고서, 공식서한, 행정문서 등을 포함한다.⁴⁾ 가장 기본적인 기본검색(Simple Search)의 화면은 아래와 같으며, 문서기호를 아는 경우 Symbol, 문서에 나오는 키워드 중심의 검색을 위해서는 Full-text search, 그리고 시간별로 검색을 할 경우 date of issuance 등을 활용하면 된다. 서치를 할 때 AND(항상 포함), NOT(항상 제외), OR(최소한 포함)을 쓸 수 있고, 특정 단어에 *를 붙여서 검색할 경우 해당 단어의 다양한 쓰임새를 포함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peace*라고 검색하면, peacekeeping, peacebuilding 등의 유의미한 단어들도 포함되어 검색결과가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유엔문서 기호체계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발행기관/연도를 나타내는 회차 또는 담당부서 등/일련번호/버전]

그렇다면 A/63/152/Rev.2는 어떤 의미일까? A는 유엔총회에서 발행한 문서란 뜻이다. 63은 2010년을 뜻하는 회차를 말하며, 152는 해당 회차에서 논의되는 152번째 안건임을 나타낸다. Rev.2는 해당 안건이 2번째 수정되었다는 정보를 나타낸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오는 문서는 S, 경제사회이사회는 E, 사무국은 ST를 제일 앞에 쓰게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기호인 ‘버전’을 뜻하는 용어로는 Rev.(초안 수정) 외에 Corr.(정정, corrigendum), Add.(부록, Addendum) 등의 표기가 있다. 기타 유엔문서 검색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Research Guide⁵⁾를 참고할

4) 포함되지 않는 문서의 종류로는 보도자료, 조약문서 등이며, 나이로비, 방콕, 산티아고, 아디스 아바바 등의 유엔지역본부에서 생산되는 문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The image shows a search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Language of search:** English (dropdown menu)
- Symbol:** (text input field) Lexicon (button)
- Truncation:** Right None
- Full-text search:** (text input field)
- Type of full-text search:** Find this phrase (dropdown menu)
- Date of publication:** From (dd/mm/yyyy) [] [] [] To (dd/mm/yyyy) [] [] []
- Sort results by:** Date of publication (dropdown menu)
- Buttons:** Search, Clear

수 있다.

2) **UN-I-QUE**(UN Info Quest) <http://lib-unique.un.org/lib/unique.nsf>

‘유니크’라는 시스템은 검색을 할 때 여러 키워드를 확인할 때 사용하면 무척 유용하다. 상단에 위치한 ‘Search Tips’를 활용하면, 분야별, 키워드별 접근에 관한 주요한 도움말을 얻을 수 있다.⁶⁾ 1946년 이후의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유엔보도자료** <http://www.un.org/en/unpress/index.asp>

유엔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는 관련 연구나 동향을 알기에 무척 중요한 정보원이다. 1994년 이후 유엔사무국 관련된 보도자료만 올라오기에, 기타 관심분야의 전문기구의 보도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5) <http://www.un.org/Depts/dhl/resguide/>

6) 예를 들어 Commemorative speech, declaration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diplomatic relations, internal oversight, international day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apporteurs' reports 등이다.

4) 유엔조약 검색사이트 <http://treaties.un.org> (불어)

<http://treaties.un.org/Home.aspx> (영어)

유엔은 많은 국제조약의 당사자 또는 수탁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엔회원국이 가입한 조약은 전부 유엔사무국에 등록을 하도록 유엔헌장이 명시하고 있다. 그에 관련된 조약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UN Treaty Collection이다.

5) 유엔통계 <http://data.un.org>

유엔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3가지 업무적인 접근을 한다. Analytical, normative, 그리고 operational이 바로 그것인데, 전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계수집 및 분석은 analytical 분야에 속한다. 종래에 각 기구별로 분산되었던 통계정보원을 'UN Data' 이름으로 종합하였으며, 분야별, 국가별, 기구별 통계 검색이 수월하게 설계되어 있다.



6) 유엔연감 <http://unyearbook.un.org>

유엔은 매년 특정 연도의 사업과 결과를 정리한 유엔연감(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을 발행하고 있다. 직접 구입시에는 상당히 고가이지만, 2009년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때로는 무척 상세한 설명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유엔의 활동결과보고서란 점에서 유용하다.



7) 유엔크로니클 <http://www.un.org/chronicle>

유엔의 공식잡지인 '유엔크로니클'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 발행되고 있다. 1년에 4회 발행되며, 매호에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유엔직원, 전문가, NGO 활동가, 학자 등의 시각을 담고 있다. 한국어판도 2010년 10월 <여성 임파워먼트: 현재까지의 성과>란 주제를 시작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공식잡지 외에 유엔 각 기구 또는 각 부서별로 발행하는 기관지 및 뉴스레터 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는 'World of Work' 잡지를 발행하며, 유엔정부부(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는 'Politically Speaking'이란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8) 유엔사진 <http://photo.un.org>

매일 매일의 유엔 공식사진이 올라오는 곳으로,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품질의 원본을 개인용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때론 한 장의 사진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활용 가치가 높다.

9) 유엔멀티미디어 <http://www.un.org/av/unfamily>

유엔이 제작하는 다양한 다매체, 영상물 등을 종합해서 리뷰할 수 있는 곳이다. CNN 등을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되는 고급 국제이슈 다큐멘터리 '21st Century'를 비롯해, 유엔의 일상을 담은 'UN in Action', 매년 유엔의 활동을 영상으로 정리한 'Year in Review' 등의 영상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0) 유엔인터넷방송국 <http://www.un.org/webcast>

NEWS & MEDIA
UNITED NATIONS WEBCAST Streaming to the World

Webcast Home

LIVE SCHEDULE

Monday, 20 December 2010
All indicated times are New York time (GMT-5)

CHANNEL 1
24 Hour Live and Pre-recorded UNTV Programming

CHANNEL 2
12:00 p.m.: Daily Press Briefing and guest

CHANNEL 3
10:00 a.m.: General Assembly 69th plenary meeting (English)

CHANNEL 5
10:00 a.m.: General Assembly 69th plenary meeting

VIDEO ON-DEMAND

CATEGORIES Daily News Story Features In Focus Previous Webcasts (2001 - 17 Sept 2010)

Latest

- Daily Noon Press Briefing
- Press Conferences
- Media Stakeout
- General Assembly
- Security Council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7 Dec 2010 00:01:31 Security Council: The Situation in Lib ...	17 Dec 2010 00:09:15 Security Council: Peace consolidation ...	17 Dec 2010 00:01:01 Looking back, Ban calls 2010 'a big ye ...	17 Dec 2010 00:11:21 Malawi: Standing up for Women's Rights ...	17 Dec 2010 00:08:14 Jordan: In the name of Honor

유엔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사무국 본부와 지역사무소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유엔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실시간 그리고 추후 관람이 가능하다. 인권이사회의 모든 공개회의도 촬영된다. 문서로 결의문을 접하는 것과, 그 결의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다른 느낌을 전달해 준다. 한번은 꼭 국제회의의 전체 과정을 지켜보길 권한다.

11) 유엔도서관 <http://www.un.org/depts/dhl>

유엔의 제2대 사무총장 이름을 따서 지은 유엔도서관 ‘다그함마솔트 도서관’은 유엔의 공식 도서관이다. 본부와 지역사무소 외 유엔회원국에도 ‘유엔기탁도서관’(UN Depository Library)이란 명칭으로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는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 경희대 등에 10개의 기탁도서관이 존재한다.

12) 유엔뉴스 <http://www.un.org/News/>

유엔의 활동과 사업 등을 매일 뉴스 형식으로 올리는 곳이다. 비슷하게 유엔뉴스를 라디오로 방송하는 ‘유엔라디오’(www.unmultimedia.org/radio/english)도 있다. 누구나 MP3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UN Radio Classics 같은 코너에서는 유엔 설립 초기, 동영상이 귀했을 무렵 녹음됐던, 역사적인 발언과 연설 등의 라디오 파일을 감상할 수 있다. 'UN Pulse'라는 이름의 웹사이트 (unhq-appspub-01.un.org/lib/dhlrefweblog.nsf)는 전 세계 유엔기구 및 유엔정보센터의 활동과 소식을 알리는 곳으로, 보다 구체적인 행사소식, 문서발간, 사업수주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유엔과 인권(www.un.org/rights)

1) 유엔에서 인권의 위치

인권은 평화와 안보, 개발, 인도주의적 구호, 국제법 등과 함께 유엔의 5대 주력 분야에 속한다. 인권이 유엔의 주요 영역이 된 계기는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에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유엔을 1945년에 설립했고, 그 ‘공동평화’에 대한 이상적인 분위기가 1948년 ‘인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로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봐서도 안타깝게도) 진보적인 내용을 갖추었지만, 유엔 가입국이 1970년대 후반 대거 확장되는 가운데 ‘인권 유린국’의 가입을 저지 하지 못해 유엔조차 지키지 못하는 선언이 되어버렸다.

5대 주력분야이긴 하지만 유엔에서 인권의 위치는 2006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설립되기 전까지 확고하지 못했다.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법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개발과 인도주의적 구호를 다루는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사무국 등의 ‘유엔헌장 기구’(UN Charter-based organizations)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인권은 유엔총회 산하에 1946년 설립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기능에 만족해야 했다. 2007년 결국 별도의 이사국을 선출하는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므로, 안전보장이사회(1945년 설립)와 경제사회이사회(1945년 설립)의 3각 체제가 60여년이 지난 다음에야 구조적으로나마 완성된다. 물론 인권이사회는 여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진 못하고 있다.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지도를 받고 있고, ‘인권 유린국’의 적극적인 이사국 진출로 인해 제대로 된 인권관련 기구로의 기능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인권관련 지식정보체계

인권과 관련된 지식정보체계는 앞서 설명한 유엔의 전반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인권이사회(www2.ohchr.org/english/bodies/hrc/index.htm)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www.ohchr.org)가 제공하는 지식정보를 활용가능하다. 이곳에 있는 News and Events와 Publications and Resources 등의 섹션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인권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식정보체계를 숙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인권관련 기관 소개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

인권관련 국제협약 및 규약 소개

<http://www2.ohchr.org/english/law/>

인권관련 훈련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의 소개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index.htm>

3) 인권관련 진출전략

8개 직업군(Job Network) 중 'Political, Peace and Security' 군에 속하는 인권분야는 현재 44개 유엔기구(organizations), 부처(departments) 및 평화유지군(field missions)에서 채용하는 직군이다.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 군축실, 르완다전범재판소, 옴브즈만실, 공보실, 윤리복무실 등 인권 기구가 아닌 일반 부처에서도 인권담당관의 수요가 있다. 관련된 공석공고를 예로 들어보겠다.

Job Title:

HUMAN RIGHTS OFFICER, P3

Department/ Office:

OHCHR

Duty Station: GUATEMALA CITY

Posting Period:

22 October 2010-21 December 2010

Job Opening number:

10-HRI-OHCHR-16147-R-GUATEMALA CITY

Education

Advanced university degree (Master's degree or equivalent)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in law, political science or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a strong component in human rights. A first level university degree in combination with a qualifying experience may be accepted in lieu of the advanced university degree.

Work Experience

A minimum of five years of progressively responsible professional experience in human rights or human rights related field. Experience of working with UN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procedures essential. Experience in working on human rights post-conflict countries and experience of advocacy in the field will be an asset. Experience of building the capacity of NGOs and other civil society actors and of working with donor agencies is highly desirable.

Languages

Fluency in English and Spanish, with proven drafting ability in both languages.

위에 공고⁷⁾된 부분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과테말라 근무지에서 근무할 인권담당관(P-3)을 공모하는 공석공고의 일부이다. 10월 22일에 공고가 시작되어 12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실제 지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자격조건이다. 해당 자격조건을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통상 쓰던 Resume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정보는 공석공고에서 Responsibilities와 Competencies 라는 부분이다.

앞서의 ‘책임’(responsibilities)은 채용되었을 경우 수행하게 될 업무분장을 뜻하며, ‘요구역량’(competencies)이란 유엔의 8대 핵심역량 중에 해당되는 역량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Responsibilities

The incumbent will:

- **Monito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particularly focusing on justice and security, including the actions taken by relevant state institutions, human rights defenders, deprivation of liberty, violence against women and carry out research activities regarding these priorities; Undertake fact-finding field miss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justice and security issues;
- **Carry out** training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ternational

7) 해당 공고의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nspira.un.org/psc/UNCAREERS/EMPLOYEE/HRMS/c/HRS_HRAM.HRS_CE.GBL?Page=HRS_CE_JOB_DTL&Action=A&JobOpeningId=16147

human rights mechanisms and assist the Office in the preparation of training material for local actors, in particular regard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 **Develop** legal analysis on the level of compliance of the State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including on the consistency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Coordinate and assist** the elaboration of methodological tools, policies, guidelines, procedures and reference materials on human rights issues with special focus on justice and security;
- **Coordinate** the Office's team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and produce inputs for the other units of the Office;
- **Prepare** internal and external reports that provid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on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country, official correspondence and public statements;
- **Work** with state authorities, NHRI, civil society, treaty bodies and special procedures;
- **Represent** the Office in public events and meetings with UN agencies and funds, including participation in inter-agency working groups.

Competencies

Professionalism: Good knowledge of and exposure of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to include approaches and techniques to address sensitive problems, special focus on security and justice; Excellent knowled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mechanisms; Good analytical

abilities, including good knowledge of institutional mandates, policies and guidelines related to human rights; Ability to identify problems, i.e., political, ethnic, racial, gender, social, economic, etc., causing civil unrest in a country or a country or geographic area; Good analytical and research skills, including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to diverse human rights issues and ability to evaluate and integrate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and assesses impa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assigned region/country; Capacity to lead and coordinate a small team.

Communication: Strong communication (spoken, written and presentational) skills, including the ability to produce a variety of written reports in a clear, concise style, to deliver training presentations to external audiences, to build/maintain effective partnerships with state authorities and civil society, to manage information and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Planning and organising: Ability to establish priorities and to plan work assignments, juggle competing demands and supervisory tasks, and work under pressure of frequent and tight deadlines.

Teamwork: Proven interpersonal skills and ability to work in a multicultural, multi-ethnic environment with sensitivity and respect for diversity.

Technology Awareness: Good computer skills, including proficiency in word processing, spreadsheets, and other relevant software packages.

유엔핵심역량은 유엔이 정한 8개의 역량으로서 ‘유엔직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역량’을 의미한다.⁸⁾ 유엔 이력서와 면접 시에 검토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역량에 관한 부분이다. 모든 유엔의 공식공고는 관련된 역량을 2~8개 내외에서 소개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자가 해야 될 일은 ‘책임’과 ‘역량’을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경력이 앞으로 채용될 때 수행하게 될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유엔의 지원자 선발시스템은 초기에 전자적으로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 따라 지원서의 2차 단계(면접 등) 통과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특정단어란 바로 ‘책임’과 ‘역량’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때 쓰여야 함을 의미한다.

4)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하라

‘인권’에 관해 관심이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관심이 구체화된 행동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인권이란 거대담론을 어떻게 개인화를 할 것인지의 고민에 따라 인권 분야 진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hink Global but Act Personal'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은 인권 이슈의 다양한 측면에 개개인의 관심사와 일상, 전공과 취미 등을 결합할 때 가능하다. 그런 경우를 통해 위에서 말한 구체적인 ‘역량’의 사례를 뽑아낼 수 있다.

8) 8개의 핵심역량은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창의성, 책임성, 지속적인 학습, 기술지식, 기획과 조직력, 고객지향성 등을 포함한다. 구글 등에서 ‘UN Competencies’라고 검색하면 쉽게, 설명이 첨가된 문건을 구할 수 있다.

6. 유엔인턴십 소개

1) 유엔 인턴십은 리트머스다

사람들마다 유엔인턴십은 무엇일지 정의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나는 ‘리트머스’라고 정의하고 싶다. 자신이 유엔과 국제기구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 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 실험이 바로 유엔인턴십이다. 본인도 현재의 유엔거버넌스센터에서 일하기 전에 최소한 정부기관(외교통상부), NGO(국제사랑의봉사단), 영리기업(북경현대자동차), 국제기구(유엔본부) 등의 영역에서 인턴으로 일해 보며 각각의 영역을 체험해봤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내가 어떤 분야가 어울리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각각의 인턴십 경험이었다. 본인이 중장기적으로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꼭 유엔인턴십을 목표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미리 경험해보면, 미리 알게 된다. 이 길이 내가 가야할 길인지 아닌지를. 많은 준비를 해서 정작 들어왔는데, 실제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어서 몇 년 후에 다른 길로 나가야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자.

2) 유엔인턴십은 발돋움(Stepping stone)이다

유엔인턴십은 본인의 경험상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잠재력 있는 친구들에겐 매우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인턴십 경력이 없었더라면 확보하기 어려운 여러 다른 기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발돋움(stepping stone)이기도 하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과거 인턴십 근무경력은 무시 못 할 참고요인이 된다.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사담당자들은 개인에 대해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 인턴으로 선발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과제를 수행했던 글로벌

사회에 노출되었다는 경험은 누구나 탐내는 경력이기도 하다.

3) 유엔이 규정한 인턴십의 목적

유엔은 인턴 지원자에게는 다음의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유엔의 일상업무를 노출시킨다.

둘째, 인턴에게 학업과 관련된 실무현장을 연계시킨다.

셋째, 유엔기구에 대한 이해 및 지식향상을 도모시킨다.

하지만, 일반 지원자들은 ‘인턴십을 시행하는 유엔의 목적’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유엔기구도 인턴십을 행하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인턴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다.

첫째, 특정 전문분야를 전공한 인턴으로부터 업무지원을 받기 위해

둘째, 미래의 잠재력 있는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해.

따라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턴십을 지원할 때에는 ‘자신이 인턴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피력하지 말고, ‘나를 뽑으면 해당 부서가 어떤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피력해야 한다.

4) 유엔인턴십 관련 통계

24개 유엔기구에서 연인원 3천명의 인턴

현재 유엔사무국을 포함해 23개의 유엔전문기구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턴의 수만 해도 연인원 3천명 가량 된다.

FAO, IAEA, ICAO, ILO, IMO, ITU, UNCTAD, UNDP, UNEP, UNESCO, UNFPA, UN-Habitat, UNHCR, UNICEF, UNIDO, UNODC, UNRWA, UNWTO, UPU, WFP, WHO, WIPO, WMO, UN Secretariat

한국인의 유엔인턴 진출

매년 한국인의 유엔인턴 진출 수는 증가추세다. 2006년에는 34명(남자 11명, 여자 23명)이었지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탄생 이후인 2007년에는 49명(남자 17명, 여자 32명)으로 유엔회원국 중 8위 수준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2008년에는 모두 61명의 한국인이 유엔사무국(49명), 유엔개발계획(1명), 세계식량계획(2명),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4명), 국제노동기구(3명), 세계보건기구(2명) 등에서 근무했다.

유엔인턴십 성별비율

한국에서도 국제관련 활동의 남녀비율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제적인 유엔인턴십 성별비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7년 유엔본부 인턴 611명 중 남성은 207명에 그친 반면, 여성은 404명에 달했다. 이를 유엔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2007년 1,675명의 인턴 중 여성은 65%인 1,091명에 달해, 35% 584명에 그친 남성을 크게 압도했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과연 여성에게 유리할까, 남성에게 불리할까? 현상 자체적으로는 남성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되면 여성들은 ‘많은 여성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남성은 ‘적은 남성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직원비율을 50:50으로 맞추겠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혁은 올해부터 해당 부서장의 인사평가에 포함되었다. 부서장이 얼마나 그 비율을 지키려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이야기다. 그 비율은 특정 시기에는 적은 수의 여성 직원을 늘리겠다는 의미였지만, 이제 어떤 부서에서는 오히려 남성직원을 늘려야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유엔기구 및 연도별 채용인턴

유엔기구별로 채용하는 인턴의 규모가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 있는 기구를 선택함과 동시에 인턴채용의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아래 도표 참조). 유엔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기구는 유엔본부로 2008년에만 724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유엔본부 만을 본다면 부서 중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유엔경제사회국(UNDESA)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이 가장 많은 인턴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내부적인 정보는 개인이 인턴부서를 선정할 때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즉, 너무 적은 인턴을 채용하는 기구나 부서는 지원을 피하고 우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두드려보라는 것이다. 일단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어렵지, 내부에서는 부서 전환이 가능하기에 너무 특정한 곳에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

5) 인턴십 선발과 지원자격

유엔본부의 경우 매년 최대로 선발하는 인턴은 약 700명이다. 1년에 봄, 여름, 가을로 인턴십 채용이 구분되는데, 전 세계 지원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4,200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9,100명으로 급증했다. 평균적으로는 13~14:1의 경쟁률이지만, 지원자의 선호 근무부서에 따라 경쟁률은 100:1 이상을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지원자 전체의 평균의 30% 가량은 서류미비 또는 부적격자로 서류전형에서 걸려 진다고 한다.

	2006년	2007년	2008년
UNHQ	616*	611*	724
UNDP	388	387	411
UNFPA	22	17	20
UNICEF	258	267	271
WFP	149	152	n/a
IAEA	41	74	85
ICAO	5	3	7
IMO	20	0	10
ITU	45	31	33
UNESCO	132	131	286

	2006년	2007년	2008년
UNIDO	88	81	82
UNWTO	24	26	26
UPU	0	3	9
WHO	140	375	357
WIPO	15	15	15
WMO	11	10	22

유엔본부 내 부서별 채용인턴 현황 일부			
2006년: ODA(35), DESA(133), DGACM(19), DM(47), DPA(56), DPI(66), DPKO(63), DSS(22), OCHA(39), OLA(59), OIOS(45), OHCHR(78) 등			
2007년: ODA(35), DESA(161), DGACM(17), DM(55), DPA(73), DPI(69), DPKO(59), DSS(2), OCHA(36), OLA(65), OIOS(27), OHCHR(109) 등			

인턴십 기본적 지원자격

통상적으로 대학원 재(휴)학생으로 인턴십을 마친 후에 다시 복학할 수 있어야 한다. 35세 이하의 나이제한이 있으며, 스스로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체류경비를 일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또는 불어를 구사해야 하며, 주5일 8시간 근무 등 Full-time 근무가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최소 2개월의 근무기간이지만, 개인과 부서가 원할 경우 4개월을 연장해서 6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인턴십 선발과정

유엔본부 인턴십의 선발과정은 온라인(jobs.un.org)을 통해 지원자 개개인이 스스로 ID를 만들고,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Personal History Profile이라 하는 ‘유엔공통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저장한 뒤에 공고에 나와 있는 ‘인턴십’ 지원을 클릭하면 된다. Cover letter로 불리는 란에 ‘지원이유’를 쓰게 되어있으니, 자신이 왜 지원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인턴십 담당부서에 접수된 지원서는 부서별로 원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2~3배의 후보를 선발해, 해당 부서로 전송하게 된다. 각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발해 인턴십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인턴십 담당부서는 선발된 개인에게 이메일과 편지를 통해 인턴십 채용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건강증명서, 인턴십 승낙서 등)를 제출하게 된다.

6) 인턴십은 DIY!

인턴십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여하와 학습에 따라 천차만별인 인턴십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다음의 사항을 잊지 말아라.

1. Communication: 인턴십 기간 중에 상사와 자주 만나 자신의 인턴십 목표는 무엇이며, 무엇을 공헌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또한 관련 분야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정보를 구하고, 관련 세미나와 이벤트에 참여한다.
2. Take Initiative: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로운 접근과 업무를 제안하고 시작해보라. 업무에 많이 연결될수록 자신이 유엔에 남아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3. Networking: 매일매일의 점심시간은 누군가를 만날 기회이다. 관심분야의 근무자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향후 기회를 만들어라.

4. Teamwork: 유엔은 팀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뛰어남도 팀의 시너지와 조화에 맞추어 개진하라. 인터뷰를 볼 때 비슷비슷한 역량의 후보자 2사람이 남게 되었을 때, 이들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기준은 거의 대부분 'teamwork'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태도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7) 참고자료

학부생도 지원가능한 인턴십

-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 ITC-ILO (국제노동기구 국제훈련센터)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UN-HABITAT (유엔헤비타트)
- UNEP (유엔환경계획)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사무국)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UNHCR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 UNIDIR (유엔군축조사사무소)
- UNITAR (유엔훈련조사연구소)
- UNICC (유엔국제컴퓨터센터)
- WFP (세계식량계획)

유급인턴십을 운영하는 유엔기구

유엔인턴십은 무급이 기본이지만, 다음의 유엔기구는 특별하게도 약간의 월급을 지불한다. 본인은 무급인턴십이라도 본인이 돈을 지불해서라도 가야하는 ‘유불인턴십’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만큼,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 세계식량계획: 매월 최대 USD 700
- 국제원자력기구: 매월 최대 USD 1,500
- 국제노동기구: 매월 최대 USD 1,500
- 유엔세계관광기구: 매월 USD 993
- 국제농업개발기금: 매월 USD 600
- 기타 세계은행그룹 계열의 유엔전문기구

유엔인턴, 장학금을 받고 가라!

무급인턴십이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장학금 기회를 눈여겨보기 바란다. 아래는 2009년 기준으로 이미 기한이 지나갔지만, 내년에 비슷한 시기에 준비를 해서 지원해보길 바란다.

- 한국연구재단 "대학원생 글로벌 인턴십"(bnc.krf.or.kr)=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제네바의 유네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학생(5명)에게 전액국비로 6개월간 경비를 지원/ 6월5일 까지 온라인 접수 받고, 합격 시 유네스코 인턴십 자격 동시 획득
- 유엔인권정책센터(www.kocun.org)= 제네바(하계), 방콕(동계)에서 1회에 약 10명 내외를 선발하여 파견 / 합격자에게 인턴십 자격이 주어지나 개인이 교육비(50만원 상당) 및 항공료와 체제경비 등은 일체 부담 / 6월 15일까지 이력서와 참가신청서 접수하며,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

- 경희대학교 & 유엔 국제기구 인턴십(uninternship.khu.ac.kr)= 국내 대학교에서는 최초로 유엔본부와 MOU를 체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체 선발과정(서류, 논술, 면접, 워크숍 등)을 통해 10여명 선발 ('06년 6명, '07년 12명, '08년 12명)왕복항공료, 그리고 소정의 체제경비 지원 / 참가가 중 정한나(08년 8월 UNDPI 행정직원 임용), 김나혜(09년 2월 UNPKO 행정직원 임용) 등이 유엔직원으로 진출
- 여성부의 국제전문여성인턴 제도= 대학원 재(휴)학생 대상으로 영어능통자(CBT 270점 또는 TOEIC 920점 이상) 중 15명 선발하여 여성관련 국제회의에 파견지원. 별도로 국제기구 인턴 선발 시 경비 일부 지원 / 서류전형 및 국문면접으로 선발하며, 국제기구 인턴십

유엔의 지식정보체계 이해 및 진출방법
: 인권분야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10년 12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인권자료실)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8층 (100-842)
전 화 02-2125-9681~3, 5
팩 스 02-2125-9686
홈 페이지 library.humanrights.go.kr (인권자료실)
인 쇄 처 리드릭(02-2269-1919)



한 곳에서 찾는 인권정보 국내 유일의 인권전문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

<http://library.humanrights.go.kr> tel. 02-2125-9681~3, 5